2020년 8월 7일

KIWOOM DAILY

Ⅰ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I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추가 부양책 기대 속 대형 기술주 강세

멕코넬 상원의원 "가까운 시일에 추가 부양책 체결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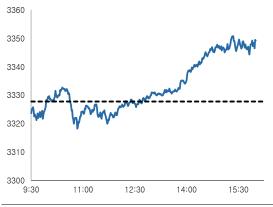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대형 기술주 급등

미 증시는 양호한 고용지표 결과에도 추가 부양책 관련 협상 불확실성으로 보합 출발. 이후 변화가 제한된 가운데 페이스북(+6.49%)이 호재를 기반으로 급등하자 나스닥의 상승이 확대. 더불어 트럼프가 백신이 11 월 이전에 나올 수 있다는 발표도 긍정적. 다만 대형 기술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은 부양책 관련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이거나 보합권 등락에 그치는 차별화 장세가 펼쳐짐(다우 +0.68%, 나스닥 +1.00%, S&P500 +0.64%, 러셀 2000 -0.10%)

대형 기술주가 틱톡을 둘러싼 이슈로 상승하며 나스닥 강세를 이끔. MS(+1.60%)는 미 상원이 정부 장치안에 틱톡의 사용금지를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는데 이는 MS 가 틱톡을 인수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사용 중단될 수 있음을 의미해 인수가가 낮아질 수 있음이 부각되자 상승. 페이스북(+6.49%)도 인스타그램에 공개되는 틱톡을 카피한 옙인 Reels 를 출시하자 급등. 미 정부의 틱톡에 대해 압력으로 페이스북의 Reels 의 영업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 더불어 상원의 틱톡 사용 금지 통과는 알파벳(+1.75%), 트위터(+2.42%) 등 소셜미디어 경쟁자들의 승리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관련 기업이 상승. 향후 관련 이슈가 중국과의 마찰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나 오늘은 영향이 제한된 가운데 상승세를 유지

그런 가운데 미국의 추가 부양책은 혼란은 지속. 여전히 민주당과 공화당의 간극이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 물론 맥코넬 공화당 상원원내 대표는 "가까운 시일내에 추가 부양책이 체결 될 것을 믿고 있다"라고 언급한 가운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또한 "우선 순위에 대한 마찰이 있으나 합의에는 이를 것이다"라고 주장을 이어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 오늘도 민주당, 공화당 대표들은 다시 만나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우호적. 한편, 트럼프는 금요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통해 실업수당과 주택 퇴거 중단 등에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압박 지속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 등락률(%)	Close	D-1	지 수등락률(%)	Close	D-1
KOSPI	2,342.61	+1.33	홍콩항셍	24,930.58	-0.69
KOSDAQ	854.12	+0.81	영국	6,026.94	-1,27
DOW	27,386.98	+0.68	독일	12,591.68	-0.54
NASDAQ	11,108.07	+1.00	프랑스	4,885.13	-0.98
S&P 500	3,347.54	+0.59	스페인	6,957.90	-1.16
상하이종합	3,386.46	+0.26	그리스	640.60	+0.45
일본	22,418.15	-0.43	이탈리아	19,475.15	-1.34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만·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 기술주 강세

페이스북(+6.49%)은 틱톡 카피한 Reels 옙을 출시하고 상원이 정부 기기안에 틱톡 사용 금지를 통과 시키자 영업 활성화 기대 속 급등했다. MS(+1.60%)는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틱톡 인수가격 하락기대가 높아지며 상승 했으며, 알파벳(+1.75%), 트위터(+2.45%) 등 쇼셜미디어 기업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상승했다. 다만 틱톡이 매출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페스틀리(-17.70%)는 실적 부진과 더불어 급락했다. 미디어 회사인 비아컴CBS(+3.42%)는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 발표하고 2분기가 광고 감소의 바닥이라고 발표한 이후 급등했다.

애플(+3.49%)은 주식분할 효과와 수익 추정치의 상향 조정이 지속된 데 힘입어 상승했다. 스카이웍 (+1.86%), 쿼보(+1.20%) 등 애플 관련주도 상승했다. 스트리밍 회사인 로쿠(-6.98%)가 부진한 실적과 하반기에도 약화 될 것이라고 전망하자 하락했다. 웨스턴디지털(-16.12%)은 대형 고객들의 수요가 약화되며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자 급락했다. 마이크론(-4.60%)은 코웬이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한 여파로 하락했으며 마벨(-3.02%)은 웨스턴디지털 부진영향으로 약세를 보였다. 우버(+4.55%)는 실적 발표 후 시간 외로 4% 넘게 급락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1.55%	대형 가치주 ETF(IVE)	+0.04%
에너지섹터 ETF(OIH)	-2.49%	중형 가치주 ETF(IWS)	-0.07%
소매업체 ETF(XRT)	-1.06%	소형 가치주 ETF(IWN)	-0.15%
금융섹터 ETF(XLF)	-0.04%	대형 성장주 ETF(VUG)	+1.14%
기술섹터 ETF(XLK)	+1.43%	중형 성장주 ETF(IWP)	-0.64%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95%	소형 성장주 ETF(IWO)	-0.02%
인터넷업체 ETF(FDN)	+0.71%	배당주 ETF(DVY)	-0.08%
리츠업체 ETF(XLRE)	+0.17%	신흥국 고배당 ETF(DEM)	+0.40%
주택건설업체 ETF(XHB)	+0.0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2%
바이오섹터 ETF(IBB)	-0.38%	미국 국채 ETF(IEF)	+0.11%
헬스케어 ETF(XLV)	-0.53%	하이일드 ETF(JNK)	+0.14%
곡물 ETF(DBA)	-0.32%	물가연동채 ETF(TIP)	+0.11%
반도체 ETF(SMH)	-0.17%	Long/short ETF(BTAL)	-0.4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os sector mack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80.45	-0.71%	+2.36%	+7.12%
소재	386.57	-0.43%	+1.91%	+7.80%
산업재	623.94	+0.32%	+2.57%	+9.97%
경기소비재	1,170.85	+0.50%	+3.49%	+5.03%
필수소비재	647.75	+0.02%	+0.76%	+6.56%
헬스케어	1,234.73	-0.57%	-0.05%	+4.94%
금융	403.29	-0.15%	+1.07%	+7.01%
IT	2,031.17	+1.46%	+7.19%	+6.80%
커뮤니케이션	197.49	+2.45%	+3.82%	+4.66%
유틸리티	306.60	+0.52%	-0.62%	+6.39%
부동산	223.31	+0.09%	-0.83%	+2.9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중국 수출입 통계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5%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0.31%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84.2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외국인이 금융, 철강, 운수장비, 화학 등을 위주로 순매수한 데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편, 장중 2,350pt를 상회하기도 했으나 미국 추가 부양책 불확실성 등이 유입되며 일부 매물이 출회 되기도 하는 등 미국 정치 이슈에 주목하는 경향이 짙은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 증시에서 멕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와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여전히 간극은 존재하나 이른 시일 안에 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한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미 증시는 대형 기술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을 뿐 대부분의 종목군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투자심리가 약하다는 점은 부담이다. 한편, 중국 수출입 통계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15 일미-중 무역합의 이행관련 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대미 수입액 규모가 이번 회담에 영향을 줄 수있기 때문이다. 중국 해관총서의 수출입 통계를 기반으로 상반기 중국은 1 차 무역합의 이행률이 48%에 그쳤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증시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 관련 소식과 중국의 수출입 통계, 그리고 오늘 저녁 발표되는 미국 고용보고서 결과를 기다리며 관망세가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신규실업수당 개선

미국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지난주(143.5 만건)이나 예상(144.2 만건) 보다 크게 감소한 118.6 만건에 그쳤다. 4 주 평균 수치도 지난주(136.9 만건) 보다 감소한 133.8 만건을 기록했다.

7월 10인 이상 대량 해고자수는 전월(170,219건) 보다 증가한 262,649건을 기록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미 10년물 국채금리 장중 0.50%까지 하락후 낙폭 축소

국제유가는 장중 경기 회복 지연과 사우디 아람코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유 판매 가격을 하락하자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판매가는 유지했다는 점이 부각되자 낙폭이 축소되었으며 미국의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점도 낙폭 축소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개선으로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추가 부양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중국과의 무역 마찰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차 약세로 전환했다. 한편, 신흥국 환율을 비롯한 여타 환율도 보합권 등락에 그치는 등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보였다.

국채금리는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 불확실성으로 한 때 10 년물 금리가 0.50%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 및 펠로시 하원의장이 "조만간 부양책 합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자 낙폭이 축소되었으며 주가지수가 대형 기술주 위주로 강세폭을 확대한 점도 국채금리 낙폭축소 요인 중 하나였다.

금은 고용지표 개선 불구 여전히 불안 심리는 지속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은도 7 년내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등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경기 회복 지연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혼조 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22% 하락했으나 철근은 0.40% 상승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종가	D-1(%)	D-5(%)
WTI	41.95	-0.57	+5.09	Dollar Index	92.788	-0.09	-0.25
브렌트유	45.09	-0.18	+4.25	EUR/USD	1.1878	+0.13	+0.26
금	2,069.40	+0.98	+5.22	USD/JPY	105.54	-0.06	+0.77
은	28,400	+5.62	+21.56	GBP/USD	1.3140	+0.20	+0.34
알루미늄	1,777.50	+0.59	+3.34	USD/CHF	0.9099	+0.15	+0.11
전기동	6,478.50	-0.25	+0.75	AUD/USD	0.7238	+0.64	+0.60
아연	2,412.00	+0.12	+5.49	USD/CAD	1.3299	+0.25	-0.92
옥수수	323.75	+0.15	-0.92	USD/BRL	5.3311	+0.73	+3.41
밀	501.25	-1.86	-5.34	USD/CNH	6.9437	+0.00	-0.85
대두	878.00	-0.09	-1.15	USD/KRW	1183.50	-0.45	-0.91
커피	118.95	-3.61	+0.59	USD/KRW NDF1M	1184.25	-0.16	-0.4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536	-1,15	-1.00	스페인	0.277	-3.00	-3.60
한국	1.305	+1.30	+3.00	포르투갈	0.300	-2.30	-1.80
일본	0.020	+0.80	-0.10	그리스	1.014	-2.50	-4.60
독일	-0.531	-2.50	+1.10	이탈리아	0.930	-4.10	-3.9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